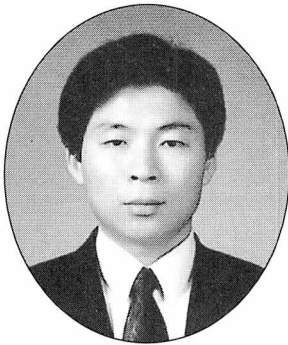




## 산업안전 선진국을 다녀와서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  
사무관 임 영 섭

**산업안전의 선진국인  
독일과 영국의 산업안전 실태와  
제도 등을 견학하고  
우리의 실태를 되짚어 본다.**

우리나라 건설업의 재해율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이유를 산업안전에 대한 규정이 불충분한 데서 찾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 중 하나가 「건설 프로젝트는 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의 단계를 거치는 라이프사이클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시공자에게 의무가 집중되어 있어 안전관리상 문제가 있으므로 발주자 및 설계자에게도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급기야 산업안전공단 국정감사시 발주자 및 설계자에 대한 산업안전상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한 조치과정으로, 이 분야의 선진국으로 알려진 독일과 영국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국내도입 여부를 결정하고자 두 나라를 다녀왔다. 발주자 및 설계자에 대한 의무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위반시 제재방법, 실제 운영상태 등

을 눈으로 확인하고자 함이다.

예를 들어 발주자에게 공사발주시 적절한 공기 제공의 의무를 부여할 경우 특정공사에 대하여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절한 공기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가, 설계시 안전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을 고려한 설계를 했는지 어떻게 판단할 것이며, 발주자 및 설계자를 처벌할 수 있는가 등이다.

독일에서의 일정은 아침 10시에 BAU-BG(건설산재보험조합) 프랑크푸르트지역본부를 방문하면서 시작되었다. 국장 Bernhar Diehl과 감독관 Harld Wilhelm은 독일사람 특유의 진지함과 열정을 가지고 면담에 임하였다.

토의는 곧 바로 우리의 관심사항으로부터 시작하였다. 건설공사현장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발주자 및 설계자의 잘못을 입증하는 방법과 제재하는 방법에 대해 지루하리만큼 계속된 토의에서 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장에서의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서두에서 언급한 발주자 및 설계자의 충분한 공기의 제공 등 전반적인 의무이행 여부를 따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발주자에게 공사의 사전 신고, 안전관리조정자(Safety Coordinator)의 지정, 안전보건계획의 작성 및 안전특기시방의 작성 등 네 가지의 극히 한정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그에 대한 단속을 한다.

프랑크푸르트 지역본부장과의 점심후 프랑크푸르트경찰서 신축현장을 방문하였다. 약 2,800억 규모의 대형 현장이었는데 안전관리조정자는 상주의 의무는 없으나 자발적으로 하고 있었고, 안전관리자도 상주하지 않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른다고 한다. 궁금한 사항 중의 하나였던 양자간의 업무 충돌의 염려는 자연 해소된 셈이다. 지상1층 공사가 진행 중으로 많은 것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기대가 컸던 만큼 조금은 실망하였다. 여러 가지 안전구호가 나붙지 않은 것을 제외하면 우리 나라의 안전관리가 우수한 현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전관리조정자와의 많은 얘기 중 「안전관리조정자가 안전미비로 작업중지를 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하소연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발주자가 선임한 사람이 그의 관심사항인 품질관리가 아닌 안전미비로 공사의 진행에 제동을 걸기가 곤란하리란 것은 당연한 귀결인 것이다. 「현장의 안전관리를 감리원에게 맡기자」는 기상천외한 발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우리의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법 준수 의식이 우리와는 비교가 안되는 나라에서도 안전점검은 정부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잠을 내어 88올림픽이 결정된 온천의 도시 바덴바덴을 찾았다. 고풍스런 건물과 잘 정돈된 정원들, 노천카페에서 5월의 따스한 햇살을 즐기는 사람들, 이 곳이 진정한 휴양의 도시임을 보여준다. 「서울 코리아」가 울려 퍼졌던 국제회의장 앞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뽕도 따고 님도 불심산으로 온천장에 들었다.

수영장같은 1층에서 온천욕을 하고 가슴설레이며 2층의 사우나로 갔다. 듣던 대로 남녀혼탕이다. 조명이 어두운 것도 아니고 가리고 말고도 없다. 그런데, 웬 일일까? 가슴이 뛰는 것은 순간, 분위기에 젖어 그렇게 아늑할 수가 없었다. 쾌적한 온도와 땀 한 방울 흘림이 없는 각기 특색이 있는 6개의 사우나는 여독을 풀기에 그만



이었다. 크지 않은 목소리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는 여인네들은 여유로운 아름다움이지 여자 로 보이지 않음에 스스로 놀랐다.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날까? 그 이유는 그리 복잡한 것이 아닌 듯

싶다. 사우나에서 수건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와 같은 데 용도가 달랐다. 우린 자기를 가리기 위해 허리에 두르는 반면, 저들은 땀을 바닥에 흘리지 않기 위해 가지런히 깔고서 앉았다. 수건 한 장을 자기를 위해 쓰느냐 남을 배려하는 데 쓰느냐가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

HSE(안전보건청)의 동북부 지역본부가 있는 뉴캐슬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접하는 곳에 위치한 항구도시이다. 일정이 빠듯한지라 영국에서도 아침부터 사무총장 I. Waugh와 선임감독관 W. J. McKay와 면담에 들어갔다.

영국은 1994년에 CDM(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발주자 및 설계자의 의무부여에 대한 EU의 권고사항을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나라이다. 그래서 발주자에게는 적절한 공기의 제공 등의 의무, 설계자에게는 안전을 고려한 설계의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어 관심이 큰 나라이다.

이 같은 과제를 놓고 장시간의 논의를 한 결과, EU규정은 안전관리에 있어서 추구해야 한

### 건설공사의 적절한 공기 부여를 위해

**독일은, 발주자에게 공사의 사전신고  
안전관리조정자 지정/ 안전보건계획 작성  
안전특기시방서 작성 이행의 의무화 하고,**

**영국은, 발주자에게 적정공기 제공 의무  
설계자에게 안전을 고려한 설계 의무를 부여함.**

목 표 ( G o a l Setting)로써 영국의 CDM은 그 목표를 추구하나 현실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므로써 그 목표에 접근하려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천창

(Sky Light)의 경우 공사중 파손에 의한 추락 사고가 빈발하였는데 안전한 구조의 천창구조를 개발하여 발주자 및 설계자에게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발주자 및 설계자를 처벌하기는 곤란하고 실제로 뉴캐슬 지역본부에서는 그러한 예가 없다고 한다.

또한, 안전관리자의 선임이 법으로 강제되지 않으며, CDM에 의해 도입된 안전관리조정자도 설계자, 시공자 중에서 지정할 수도 있고 능력이 있으면 별도 선임 없이 발주자 자신이 그 역할을 하는 등 매우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소박한 점심을 대접받고 뉴캐슬러비경기장 증축 공사현장을 방문하였다. 35,000석에서 51,000석 규모로 확장하는 공사인데 다른 경기장들이 그렇듯이 층고가 50m도 넘어 보여, 저 높은 곳을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괜히 왔나 싶었다. 독일의 현장과 마찬가지로 현수막하나 걸리지 않은 현장은 약간은 실망스러웠다. 그러나, 막상 내부로 들어서서 작업장소인 지붕까지 아마추어인 필자가 오르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 승강용 사다리, 이동통로 및 작업발판등

이 규정대로 단단히 매어져 있기 때문이다. 위험한 곳엔 위험표지 대신에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난간을 아예 설치해 놓았다. 콘크리트를 절단하는 작업자는 분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언젠가, 포항의 한 현장을 방문했을 때 느꼈던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도착하자 거수경을 군인처럼 붙여대는 경비원과 안전현수막, 말끔히 쳐진 방망 등 나무랄 데가 없었다. 그러

**선진국의 안전관리는 점검대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요란스런  
끝치레가 아닌 실질적으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이 있었다.  
이러한 배경은 무엇보다도 남을 배려  
하는 사회적 성숙이라고 보여지날.**

나, 낙하물방지망은 약하고 비계사이에는 아예 쳐 지지도 않아 낙하물을 받아낼까 의심스러웠고, 강풍속에서도 해체한 철제거푸집이 비계위에 방치되고 있었다. 어느 편이 재해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나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일 것이다.

하루 종일 계속된 미팅과 현장 방문으로 심신이 지쳤으면서도, 뉴캐슬의 밤거리를 느껴보고 싶었다. 저녁도 해결할 겸 동행인과 함께 다운타운을 찾았다. 약간 쌀쌀한 날씨라서 그런지 행인은 별로 없는데, 젊은이들은 삼삼오오 거리를 활보한다. 아직 어린티가 채 가시지 않은 이들은, 혈기로 마신 술기운을 주체하기 어려운 듯 경중거리며 노래도 부른다. 독일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독일에 있는 친구는 사람들의 행동이 너무 조신해서 사는 재미가 없을 정도라고 했

다. 낮선 우리는 어쩐지 겁이 나서 일찍 호텔로 돌아왔다.

다음날 물어봤더니 걱정할 것 없단다. 젊음을 즐기기는 해도 남에게 방해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다. 취중에도 우리와 스칠 때는 한 줄로 비켜섰고, 거리에서 시비를 가리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 거친 바이킹의 혈통을 가졌으면서도 영국신사의 명예를 지키는 것일까?

두 나라에 대한 출장에서 안전선진국의 안전정책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발주자 및 설계자에 대한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부여는 우리의 선언적인 수준에서 조금 진보한 수준이거나, 규정을 현실을 고려하여 매우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자동차 제조과정에서 사고났다고 자동차 구입자를 처벌할 수 없지 않느냐」는 일반 상식이 확인된 것이다.

둘째, 내실있는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점검에 대비하고자 하는 안전관리가 아니고 실제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하고 있다. 이는 사고발생시 책임을 확실하게 묻는 정책과, 규정이 있으면 그대로 따르는 법 준수 의식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이 선진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남을 배려하는 사회적인 성숙이라고 보여진다. 우리의 제도가 그들에 비해 못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배려하는 마음, 근로자는 동료의 안전과 사업주의 경영을 생각하는 기본의 확립이 부족한 것이다. 수건 한 장을 남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데서 오는 차이이다. 